



입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뉴스센터 뉴스레터 신청

뉴스 | 모바일 | 엔터테인먼트 | 시큐리티 | e클럽 | 다운로드 | 구인/구직 | 리서치 | 프리미엄

e라이프 · 통신/방송 · 인터넷/커머스 · 컴퓨팅 · 게임/콘텐츠 · 증권 · 글로벌 · 일반종합 · 동영상 뉴스 · 기자직

모바일

- 모바일 정책
- 모바일 기업 소식
- 휴대폰/ PDA
- 모바일 서비스
- 솔루션/ 인프라
- 모바일 라이프

2006-2007 대한민국 모바일 연감 출간!

뉴스

- e라이프
- 통신/방송
- 인터넷/커머스
- 컴퓨팅
- 게임/콘텐츠
- 증권
- 글로벌
- 일반종합
- 대덕벨리 24시
- 기획시리즈
- 스페셜리포트
- 동영상뉴스
- 기자의 눈
- e사람
- e기업
- e상품
- 인사/부음/등정
- 테크클럽
- 기사정정
- 뉴스자료실

스페셜페이지

- > 따뜻한 디지털 세상
- > 국감 2005
- > 콘텐츠가 국력이다
- > 대작 온라인 게임 쏟아진다
- > 디지털 소매처기 '피싱'
- > 국감 2004
- > SW사업을 살펴라

Home > mobile > 솔루션/인프라
Home > news > 통신/방송

세계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시험 '성공적'

홍콩=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2006년 12월 01일



지난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세계 3개 대륙 4개국에서 실시한 네트워크 호환성 시험(GMI2006) 결과,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홍콩에서 열린 넷이벤트 세계 기자간담회에서 멀티서비스포럼(MSF)의 로저 워드(Roger Ward) 의장은 GMI2006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모두 5가지의 시나리오에 대해 호환성 시험을 거친 결과 매우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며 "IMS와 차세대 네트워크가 실용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MSF에 의하면 이번 GMI2006은 18개월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쳐 4개국 3개 대륙의 5개 사이트를 통해 상호 호환성 시험을 진행했으며 200여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

이번 GMI2006은 영국의 BT를 비롯해 보다폰, KT, NTT, iol, 버라이즌이 실험실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호환성 시험을 진행했으며 총 26개의 장비 업체들이 참여했다.

첫번째 시나리오(단계)에서는 IMS(IP Multimedia Subsystem)를 시험했다. 2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기기를 추가, 3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기기를 확장, 4번째 시나리오로 로밍, 5번째 시나리오에 스는 구체적인 작동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5가지 케이스에 대해 실험이 이뤄진 시나리오1에서는 72%의 성공률을 보였으며 시나리오2에서는 97%, 시나리오 3에서는 71%, 시나리오4에서는 100%, 시나리오 5에서는 68%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앞으로는 각 표준화 기구간의 상호 운용성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어 중복성이 이슈로 떠올랐다.

로저 워드 의장은 "호환성 표준화와 관련해 ITU-T, MEF, IEEE802.3/802.1, MSF, IETF 등 다양한 기구가 중복돼 있다"며 "다음 단계에서는 표준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통신사업자로는KT가 장비업체로는 삼성전자, ETRI, 애크미패킷, 스파이럴트커뮤니케이션즈사가 참여했다.

관련기사

- "IMS 호환성 테스트 성공률 평균 81.6%"...MSF
- "GMI2006은 사업자와 벤더의 윈윈 전략"...KT BcN 이동면 본부장
- "상호운용성 검증으로 글로벌 IMS 앞당긴다"...GMI2006 순환

IT은 아이뉴스24, 연애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